


# 시온 주보

제2345호 2021년 6월 20일(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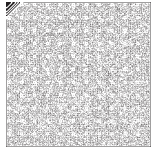
연중 제12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 입당송 | 시편 28(27),8-9 참조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  
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재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

## 제1독서 | 욕기 38,1,8-11

## 화답송 | 시편 107(106),23-24,25-26,28-29,30-31(◎ 1 참조)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  
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

○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  
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

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

○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  
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  
을. ◎

## 제2독서 | 2코린 5,14-17

## 복음환호송 | 루카 7,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 복 음 | 마르 4,35-41

## 영성체송 | 시편 145(144),15 참조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 한계 체험

동료 사제들과 종종 산에 갑니다. 등산 시 사족보행을 하다 보면 비루한 체력 때문에 숨을 헐떡입니다. 마음속으로 신세 한탄도 해보지만 몇 차례 고비를 넘기고 나면 한결 편해집니다. 산에서 느끼는 이 ‘한계 체험’은 형제들과 함께 봉우리에 다다랐을 때 성취감으로 보상받습니다. 또한, 이 한계 체험은 설렘과 기쁨으로 다음 산행을 기약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성경 말씀에서도 한계 체험이라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1독서(욥기 38,1,8-11) 본문은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무죄한 의인 욥이라는 인물의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즉 한계 체험을 통해 하느님의 정의, 그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의 참된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 심오한 질문들이 욥기 안에서 던져집니다.

제2독서(2코린 5,14-17)는 신약성경 코린토 2서로 교회 공동체가 분열된 상황에서 바오로가 쓴 편지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활동으로 분열된 공동체, 즉 한계 체험을 겪고 있던 공동체를 향해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2코린 5,17)이 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속된 기준으로 주님을 이해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속된 기준으로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마르 4,35-41)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계 체험을 겪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갈릴래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 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돌풍이 일어 물이 배 안까지 가득 찹니다. 한편 스승님께서서는 태평한 듯 뱃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배가 침몰할까 두려워 안절부절못하던 제자들, 심지어 스승님을 원망했을 그들 앞에서 마침내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멎고 고요해집니다.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에서 제자들의 한계 체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서서히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탁 트인 능선길도 만나지만, 가파른 오르막길과 바윗길을 걸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산을 걷다 보면 하느님을 의심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고통에 무관심한 듯 보이는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여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한계 체험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와 같은 훈계는 한계 체험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산에 오릅니다. 이 길 위에서 만나게 될 한계 체험이 기쁨과 설렘으로 바뀌려면 이웃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세, 이웃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걷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감과 소통, 연대와 격려 속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 희망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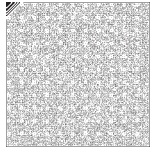
남한산성, 경기도

###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마르 4,39)

거센 풍랑으로 뒤집힐 듯 흔들거리는 배 안에서 견잡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허둥대던 제자들의 모습과 세상의 온갖 유혹과 탐욕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닮았습니다. 주님! 거친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 단단한 돌 틈 사이에서도 생명의 싹을 틔운 풀잎처럼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이복숙 크리스티나 | 가톨릭사진가회



신유진 그라시아 | 국악인

## | 우리의 안식처

몇 년 전, 부모님과 인천에 여행을 갔을 때, 그 근처의 성당을 찾아 함께 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미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평일 오전 시간이라 청년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강론 중에 신부님께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낯선 젊은이인 제가 눈에 띄었나 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랑 술 한잔하면서 스트레스 푸나요? 보통 어떻게 해요?”라며 신부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빈 성당에 앉아서 하느님께 말씀드려요.” 신부님께서 잠시 멈칫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 미사 드리러 와 있는 거구나!”

저는 하느님, 성모님께서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 후로, 그분들과 자주 마음속으로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저의 다양한 감정들을 말씀드리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상처를 줬을 때도 순간의 화살기도로 저를 보호하곤 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 기도가 습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제 나름대로 그만큼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겪어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판소리를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을 때, 노래는 저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은 변함이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무대 경험과 입시를 거쳐 국악 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기까지 엄청난 부담감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답을 해준다는 감사함에 눈물 흘린 날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오랜 인고의 시간 동안 쓴 고통을 맛본 뒤에야 찾아온 기쁨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대회를 통해 실력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고, 더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전통에 기반을 둔 창작물을 만들며 고군분투했습니다. 고개를 겨우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타났고, 그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의 은신처 없이 저 혼자였다면 절대 넘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성모님 손을 잡고 함께 간 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이 되었지만, 언제든 성당이 보이면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 성체 앞에서 제 마음을 다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일들을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주님께서 그 힘으로 단단히 묶힌 마음속 응어리들을 얼음 녹듯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인생의 고개를 넘고 있는 저와 많은 분들이, 힘들 때 마음의 안식처를 기억하고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 피정에서 들었던 묵상 곡의 가사처럼 말이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너희가  
하  
늘  
에서  
받은  
사랑이다.  
마태오  
5.12

임향 골롬바  
명동대성당



#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 성무일도가 뭔가요? 저도 해도 되나요?

‘해도 되는’ 선택의 정도가 아니라, 세례받은 신자 모두가 성무일도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바치도록 교회가 공적인 가르침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음을 먼저 답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전례 현장 100항 참조). 성무일도가 무엇이길래, 신자들은 모두 성무일도를 바치라고 교회가 그토록 강력히 권고할까요?

성무일도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기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사 때 정성껏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그때그때 바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정답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루카 21,36)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세 번 기도를 바쳤던 예수님 시대 유다인들의 전통에 더하여, 밤 기도, 새벽 기도 등을 추가해, 하루에 8번 기도를 바치는 전통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기도들에는 기도 내용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편’을 중심으로 성경 등을 덧붙여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시편을 기도의 중심으로 삼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계실 때, 그 시대 유다인들의 전통이 그러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도 전통을 따르셨을 테니까요.

이렇게 시편을 중심으로 정해진 기도 내용에 맞춰, 정해진 횟수에 따라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봉헌하는 기도가 바로 ‘성무일도’입니다.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4주에 걸쳐 시편 150편의 대부분을 한 번 순환하는 구성을 갖추었고, 하루 최대 7번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 안에서 교우들이 성무일도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왔습니다. 가령,

하루 세 번 성당에서 종을 치면, 삼종기도를 바치죠? 이 종소리는 원래 시간에 맞춰 성무일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알람이었습니다. 이때 바치는 삼종기도는 성무일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낸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몰라 성무일도를 바치지 못했던 신자들이 성무일도 대신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묵주기도인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678항 참조).

굿뉴스 웹사이트는 물론, 모바일 앱에서도 매일 7번 봉헌되는 성무일도 전문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두어 번이라도 ‘항상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무일도를 봉헌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 영성체를 여러 번 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을 더 많이 모시면, 더 많은 은총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체를 통한 은총은 성체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체 축성에 사용했던 제병이 더 컸다고 은총을 더 받는 것도 아니며, 여러 성체를 한꺼번에 모셨다고 받는 은총이 더 크지도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교우들에게 영성체를 권장하면서도, 미신적인 믿음으로 영성체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법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영성체의 최대 횟수를 규정해놓았습니다. 최대 2회까지입니다(교회법 917조 참조). 물론, 임종을 앞둔 분들은 다시 영성체하셔서 힘을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교회법 921조 참조).

무작정 영성체 횟수만 늘어난다고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해당 교회법 조문은 알려줍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 깊고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6월 24일(목)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 교황님과 함께 하는 '백신 나눔 운동'

**참여방법 1** 본당 사무실에 성금 접수(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참여방법 2** 계좌입금: 우리은행 1005-398-100101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연락 주십시오.  
문의: 02)774-3488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6월 24일 윤의병 바오로 신부(60세)
- 1950년 6월 25일 김경민 루도비코 신부(48세)
- 1978년 6월 21일 서우석 요한 신부(44세)
- 1984년 6월 25일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82세)

\*1950년 6월 24일 선종하신 신부님은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  
로 한국 전쟁 중 순교한 분입니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  
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 교구장일림

### 소방사목 선교봉사자 모집

내용: 교육과정 수료 후 파견  
대상: 건진받은 60세 이하의 교우  
문의: 02)727-2078, 010-4799-2078 직장사목팀

### 제16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

하느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개인  
과 단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6월14일~7월16일 / 시상: 10월20일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cbck.or.kr) 참조 / 문의: 02)460-7622

###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7월5일(월)까지 교구 법원  
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권기철, 김철용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2021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하반기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모집**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초·중급) 교회음악  
가 자격증 수여(구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콘서트바토리 과정)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  
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원서접수: 7월12일(월)~23일(금)  
접수방법: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 요망  
문의: 02)393-2213~5(http://www.casm.site)

하 반 기	개강일정	2021년 9월 개강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 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학기운영	3학기 과정 / 직장인을 위한 주중 저녁 / 주말반 운영
	입시일정	원서접수→면접전형(실기)→합격자발표→등록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이론연구소 14회 회원전: 전관  
전시일정: 6월23일(수)~28일(월)

**영성심리상담교육원 2021년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대상: 만 20세 이상, 가톨릭 신자(단, 각 프로그램  
의 성격에 따라, 수강 대상이 따로 제시될 수 있음)  
때: 7월~12월 /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의사소통훈련, 피정 등(자세  
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 참고)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  
청(온라인 화상 수업의 출결 확인을 위해 카메라 설치  
된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등 사용 필수)  
문의: 02)727-2126(tpc@seoul.catholic.kr)

**홍보위원회 특강 수강생 모집** / 문의: 02)751-4104

강좌 신청: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catholicartstory)  
1) <팬데믹 안에서, 그리고 그 이후 우리는?>  
때: 6월23일~7월14일 매주(수) 19시30분~21시(선착순 50명)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회비: 6만원(일괄 접수)

6월23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치, 사랑	정호승(시인)
6월30일	용기와 도전은 계속된다	한바야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7월7일	더 열심히 지켜야 하는 정신건강	윤제현(서울대병원 교수)
7월14일	팬데믹을 극복하는 힘, 문화와 영성	최대한 신부

2) <하느님의 선물, 시(詩)가 있는 7월의 여름밤>  
가톨릭이 자랑하는 4명의 시인을 초대해 시를 통한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때: 7월5일~26일 매주(월) 19시30분~21시(선착순 60명)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회비: 6만원(일괄 접수)

7월5일	너의 연인이 되기 위해 오늘 나는 별이름 하나를 더 원다	신달자
7월12일	예곤 실례를 사랑한다면, 한번쯤은 체스키크로모프	김해선
7월19일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	허연
7월26일	울지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야	정호승

**용문청소년수련장 가족캠프 안내**

가족과 함께하는 전례 및 프로그램 진행, 수영  
장 사용 가능 / 문의: 031)774-3587  
때: 7월16일~8월29일(2박3일 / 총 9차수)  
접수: 6월15일(화) 오전 10시 선착순 마감  
자세한 일정 및 문의는 용문청소년수련장 홈페  
이지(www.yongmooncamp.or.kr) 참조

**새 삶을 향한 참생명학교 기초과정 3기 모집**

교육명: 새 삶을 향한 참생명학교 기초과정 3기  
대상: 서울대교구 전 신자 / 회비: 5만원  
때: 7월5일~8월23일 매주(월) 오후 7시~9시(8주)  
강의방식: Zoom(화상회의)을 통한 온라인 강의  
접수기간: 6월30일(수)까지 선착순 모집  
신청 및 문의: 02)727-2351 생명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1275차 미사(내 마음의 복벽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6월2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분: 서울대교구 장원 분당, 매화동 분당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복벽분당을 위한 묵  
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2021년 'DMZ 국제청년평화소례' 참가자 모집

대상: 20세~30세(내·외국인 청년) / 회비: 5만원  
때: 8월16일~21일(5박6일)  
곳: DMZ접경지역(강화-파주-연천-철원-고성)  
접수: 6월30일까지 마감(홈페이지에서 접수)  
본 행사 참가자 '2022국제바티칸행사'에 우선 참여  
권 부여 / 문의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전화(02)753-  
0815 및 홈페이지(http://caminjok.or.kr) 참조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seoul\_jubo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QR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6월26일(토) 14시	본원	010-4241-1210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말회	수시	수녀원(경기도 양주)	010-6625-0927
예수 고난회	7월3일(토) 18시~4일(일) 13시	수도원(돈암동)	010-6804-4904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pnunskorea@catholic.or.kr)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	6월27일(일)	본원(삼선교)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 서울주보의 진화 어디까지인가?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가난한 사람은 우리  
교회의 보물이다.” 돌아  
가신 바오로 6세 교황님  
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  
말 되새길수록 깊이 반성  
되고 묵상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데  
레사 수녀님은 죽음을 맞  
는 그 순간까지 버림받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  
다. 살아있는 성녀라고 칭  
송을 받은 데레사 수녀님  
은 모든 이들의 희망이었  
고, 대다수 국민들이 다  
른 종교를 믿는 인도에서

조차 성인처럼 우리름을 받으셨습니다. 가난과 고통에  
짓눌린 이들을 위해 한 생을 오롯이 바친 마더 데레사  
수녀님! 죽어가는 환자와 가난한 이들을 보살핀 탓에  
등은 활처럼 휘었지만, 심장병으로 죽음을 맞는 그 순  
간까지 버림받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손길을 멈추  
지 않았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사후 5년이 지나야 시복시성절차를 추진

하는 관례를 깨고 마더 데  
레사 수녀 선종 6년 만인  
2003년 10월 19일 그녀  
를 복자품에 올렸습니다.

어느 성인은 만약 가  
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  
으면 교회가 기본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라 하셨습  
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  
한 자선과 봉사는 교회의  
거룩한 의무인 셈이죠.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삶  
을 올바르게 살 때 또 다  
른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  
습니다.

2014년 8월, 프란치스

코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  
를 받고 그분의 행보에 감동을 받았죠. 직접 써주신  
메시지를 통해, 우리 서울대교구가 서울의 누룩이 되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과 봉사에 전념하라는 부탁입니다. 그 후에  
우리 교구는 여러 방면에서 이러한 교황님의 말씀을

가난한 사람, 따뜻한 나눔

서울주보를 발행해 주시는 교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주보 2008호 발행을 기념하여,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실천할 새 코너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을 기획하였습니다. 서울대교구 홍보과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매달 한 번씩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교우를 소개하고, 교우들의 성금을 모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삶이 격박까지 넘어야 하는 요즘, 서울주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이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 홍보국장 허영엽 신부 -

첫 번째 이웃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인 2월 4일 오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회장 김성훈 신부) 산하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김화영 사회복지사와 함께 이 마리아(22세, 방동본당) 자매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언제 지어졌는지 자봉조차 온전치 않아 천막을 두른 허술한 집에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매님과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석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잠시 아아기를 나누다 보니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카락이 아파왔습니다. 자매님께 괜찮으신지 여쭙보니 “난 종일 있어서 그런지 잘 못 있었는데... 문 좀 열어놔야겠네.” 하십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이 집은 난방이 되지 않아, 10년이 지난 석유 난로와 동사무소에서 기증받은 작은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문 앞에는 석유통들이 줄지어 행어 붙어 나뉘어 어떻게 하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LPG 가스통에 가스레인지와 화상실 온수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이 온수기조차 고장이 나서 현재는 따뜻한 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목욕을 할 수가 없어서 목욕탕에 갔지만, 목욕탕 주인은 물이 설치 않은 자매님이 행어 다칠새라 손사래를 치며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사는 집은 자매님의 친구 집이었습니다. 친구분은 돌아가시고, 그분 아들이 계속 살도록 배려해주어 20여 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일찍이 알코올 의존증이었던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식당일을 하며 아들과 두 딸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생이던 아들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정신장애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폭력적인 아들의 증세로 가족은 의해되고,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은 두 딸은 집에 발

길을 끊었습니다. 계속된 학물치료로 현재 아들의 상태는 호전되었지만, 자매님이 뇌병변장애를 얻게 되면서 자봉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배달 국가에서 지원하는 60여 만 원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한 달 식유값만도 20만 원. 거기에 병원비, 전기세, 식비 등 생활비를 쓰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안전상 위험한 집이지만 모야돈 돈이 없어 이사는 꿈도 못 꿉니다. 그렇지만 자매님은 본당 공동체의 기도와 가정방문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며 굳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매님을 후원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씀드리자 오히려 “난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매님을 보면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년 전 잠시 나쁜 생각도 했었지만, 온전치 못한 아들을 걱정해 쉽게 눈을 감을 수도 없다는 자매님을 위해 교우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지선 제자녀 | 홍보과 편집과(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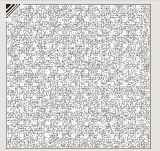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0-4002-10000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15년 3월말~3월말까지 명의 제1회 후원회에서는 후원금인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 첫번째 이웃 '이 마리아' 자매님을 위해 쓰여집니다. 교우 여러분의 이 마리아 자매님을 후원하여 지원한 내용은 다음달부터 서울주보를 통해 안내됩니다.

- ▶ 후원대상은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과 산하 각 위원회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약 25개 사회복지사업에서 추천받은 교우 중에서 선정합니다.
- ▶ 후원금인 후원금은 연금 소득공제와 납부금수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후원금) 후원금
- ▶ 문의는 727-2422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김성기, 727-2024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과 김지선

6 서울주보





실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교구 홍보국도 어떤 일을 계획할까 생각하다, 주보의 많은 부수와 신자들의 높은 열독률에 착안해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을 기획하였습니다. 당시 홍보국장이던 저는 주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신자들에게 공지를 하고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서울주보 2000호 발행을 기념하여,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실천할 새 코너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을 기획하였습니다. 서울대교구 홍보국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매달 한 번씩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교우를 소개하고, 교우들의 성금을 모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삶이 각박해져 나눔이 줄어드는 요즘, 서울주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이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실제 우리 직원이 어려운 분을 찾아가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주보에 글을 써서 후원을 부탁드렸지요. 이 기획은 ‘첫 번째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3월 1일 자 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 “첫 번째 이웃”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인 2월 4일 오후, (중략) 언제 지어졌는지 지붕조차 온전치 않아 천막을 두른 허술한 집에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매님과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석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까지 아파졌습니다. 자매님께 괜찮으신지 여쭙보니 “난 좀일 있어서 그런지 잘 몰랐는데... 문 좀 열어놔야겠네.” 하십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이 집은 난방이 되지 않아, 10년이 지난 석유 난로와 동사무소에서 기증받은 작은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석유통들이 즐비하여 행여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LPG 가스통에 가스레인지와 화장실 온수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이 온수기조차 고장이 나서 현재는 따뜻한 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목욕을 할 수가 없어서 목욕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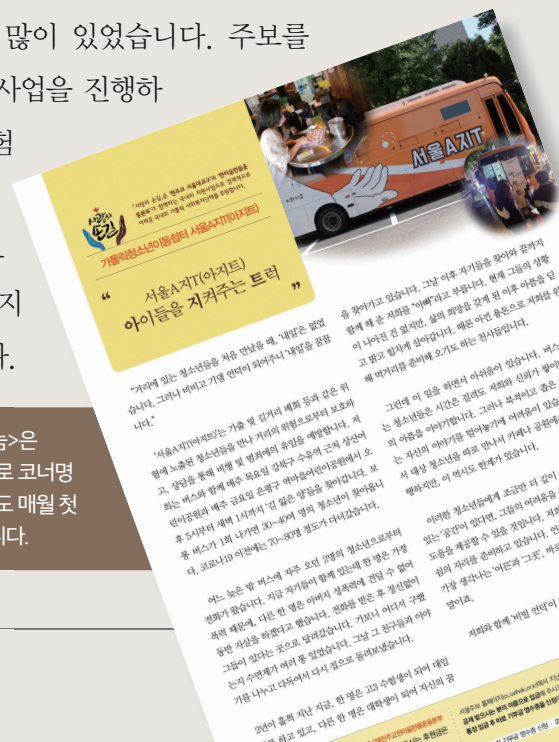
에 갔지만, 목욕탕 주인은 몸이 성치 않은 자매님이 행여 다칠세라 손사래를 치며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략) 중학생이던 아들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정신장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폭력적인 아들의 증세로 가족은 외해되고,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은 두 딸은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계속된 약물치료로 현재 아들의 상태는 호전되었지만, 자매님이 뇌병변장애를 얻게 되면서 거동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매달 국가에서 지원하는 60여만 원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한 달 석유값만도 20만 원. 거기에 병원비, 전기세, 식비 등 생활비를 쓰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안전상 위험한 집이지만 모아둔 돈이 없어 이사는 꿈도 못꿉니다. 그렇지만 자매님은 본당 공동체의 기도와 가정방문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며 굳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매님을 후원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씀드리자 오히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요.”라고 말하는 자매님을 보면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잠시 나쁜 생각도 했었지만, 온전치 못한 아들 걱정에도 쉽게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는 자매님을 위해 교우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다른 언론 기사와는 달리 하루종일 어려운 분의 사정을 인터뷰를 통해 들어주고 충분히 파악을 하고 쓴 글이라 아주 현장 중계처럼 생생합니다. 이 일을 담당하고 실제 기사로 썼던 홍보국 직원은 그 후에도 종횡무진 전국을 누볐고, 필리핀의 오지에도 가는 열성을 보였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금이 들어오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보를 통해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적을 체험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서울주보의 진화가 어디까지 일까 궁금해집니다.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은 2017년 <사랑의 손길>로 코너명을 변경하여, 2021년에도 매월 첫째주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인준단체 알림

### 모임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개생활피정' / 최영민(예수회)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7월1일~31일 / 문의: 010-8874-7970

**하느님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팔로티회)**  
때: 6월22일(화) 13시30분(강의)~14시50분(미사)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6층 / 문의: 031)707-4450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심화 피정**  
때, 곳: 8월5일(목)~8일(일), 수리치골 성모성심의 집  
회비: 35만원(1인실, 32명) / 지도: 허성준 신부 외  
문의(접수): 010-8599-3127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성서모임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곳: 6월27일(일) 15시,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카카오톡 '성서가족 열린미사' 검색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자연순례 피정: 7월23일~25일, 7월30일~8월2일, 8  
월5일~8일, 8월12일~15일, 8월21일~23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문의: 010-3340-0201 도미니코 피정의집(형성)

성경완독	7월2일(금)~10일(토)
효소단식	7월15일(목)~18일(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1차	7월16일(금)~24일(토)	문의: 061)373-3001,
제92차	8월13일(금)~21일(토)	010-3540-9001

### 교육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설명회·여름진학캠프**  
대상: 현 초6, 중1 / 문의: 054)338-0530

전입학설명회	7월3일(토) 14시
여름진학캠프	8월7일(토)~8일(일)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7월 개강·6주 과정)**  
안전한 강의환경을 위해 수강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의식(양식) 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 강의	(월) 10시~12시	권오면 신부
동영상 녹화 강의	링크 발송	
구약성경 아카데미: 오직 하느님만 섬겨라-예언서		
현장 강의	(화) 19시30분~21시	주원준 박사
동영상 녹화 강의	링크 발송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7월5일(월)부터 10주 / 문의: 02)338-3793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가톨릭은(생활성서사 온라인 클래스)**  
저자직강(김혜운 수녀, 박기석 신부, 박형순 신부,  
김효준 신부, 김영선 수녀) / www.catholicon.co.kr  
수시 접수 / 문의: 010-3092-1108, 02)945-3300

**복음화학교 144기 온라인 유튜브 3주차 수업**  
때: 6월7일(월) 19시·6월9일(수) 14시·6월10일  
(목) 10시 / 수강문의: 02)753-8765, 02)2096-  
0410·0411 새천년복음화학교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  
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양업고등학교 대안 좋은학교 연수** / 문의: 043)260-5076  
대상: '좋은학교'에 관심있는 교사·학부모  
때, 곳: 7월17일(토)~18일(일) 1박2일, 학교  
회비: 1인당 7만원(입학전형 안내 포함)  
접수: 7월6일(화) 오전 10시 양업고 홈페이지 팝업창  
상기 일정은 코로나19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심리상담사자격증 초급반**  
음악심리상담사자격증 초급반: 7월1일~22일 매주(목)  
13시~16시,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회비: 13만5천원 / 문의: 010-4252-1165, 02)575-  
7661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초급 수료 후 중급, 고급, 심화 수료 후 검정을 거쳐  
음악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Zoom 수업을 통한 온라인 수업으로 진  
행하며, 사정에 따라 출석수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6월23일(수),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때, 곳: 6월21일(월) 14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05-3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19-1575  
대상: 중국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김운상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차장)  
때, 곳: 7월7일(수)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가정선교회 7월 행사**  
문의: 010-2367-2297, 010-6281-8626, 02)777-1773 대표

첫토 성모 신심미사	7월3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성가정영성 1일 피정	7월7일 9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 회비 없음, 식수 준비

### 인내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면담**  
부모사후 및 부모 양육불가 시스템 준비 중  
문의: 031)691-8431 김성구 신부(도미니코 수도회)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전문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 (월~토) 진행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천주교 대전교구 / '치매안심병동' 운영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피부과  
성사생활 가능, 간병인 상시 모집 / 문의: 041)950-1008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종림동약현성당 2022년 1·2월 혼인예약**  
종림동약현성당에서는 2022년 1, 2월 혼인예약  
예약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때: 7월6일 오전 9시 / 준비물: 교적 사본, 예약금 60만원  
주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당을 개방하지  
않으니 접수 당일에 오시기 바랍니다 2022년 3  
월~12월까지 예약은 10월 중에 추첨이 있습니다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상처입은 마음치유와 가족관계 회복훈련	7월3일~8월21일 매주(토) 10시~13시(7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기피, 강박행동

**성라파엘심리상담소**  
때: (월·일) 주말상담 / 070-4248-7573, 010-3008-4627

가족세우기	매주(토·일) 슬기로운 부모생활
전문 심리치료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 및 가족 개인(분노·우울·불안·부적응) 종합심리검사 / 비대면 화상상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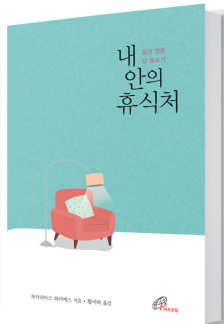
## 유판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 부부, 진로, 영성상담,  
진로검사, 화상(Zoom) 상담 가능 / 소장: 이찬 신부  
문의: 010-9295-5912(www.dstcoun.net)

### 직원모집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해화동·도림동)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  
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봉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봉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  
교구 사무처) 또는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7월4일(일)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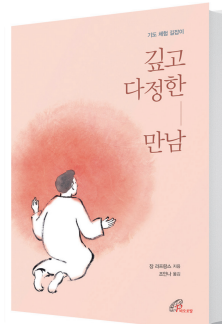


신간

## 내 안의 휴식처

자카리아스 하이에스 지음  
바오로딸 | 212쪽 | 1만3천원  
문의: 02)944-0944

진정한 휴식처를 알게 하고 그 휴식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빠른 변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면의 고향을 찾고 일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도록 많은 영적 자극을 준다. 예수님을 비롯한 여러 성인들의 삶, 저자의 다양한 체험도 곁들여 흥미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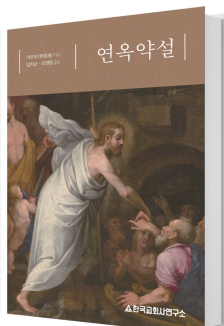


신간

## 깊고 다정한 만남

장라프랑스 지음  
바오로딸 | 408쪽 | 1만8천원  
문의: 02)944-0944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은 하느님께 선택된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통한 객관적인 구원 체험으로 이루어진다. 이 책은 하느님이 인간을 불러 우정 관계를 맺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셔서 인간이 사랑의 하느님을 발견해 가는 여정인 기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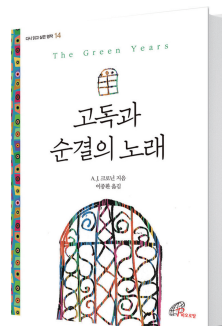


신간

## 연옥약설

이문어 지음  
한국교회사연구소 | 360쪽 | 2만원  
문의: 02)756-1691(내선 2번)

중국에서 전래한 한문서학서 『煉獄略說』의 한글 필사본인 『연옥약설』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임치균 교수와 조현범 교수가 판독·번역하여 주석과 해제를 달고,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한문 목판본을 영인하여 단행본으로 엮은 교회사 연구 자료다.



신간

## 고독과 순결의 노래

A. J. 크로닌 지음  
바오로딸 | 540쪽 | 1만7천원  
문의: 02)944-0944

『천국의 열쇠』로 널리 알려진 저자 A.J. 크로닌의 자전적 소설로 우리나라에는 1974년 처음 소개되었다. 1900년대 초반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의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작품은 주인공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cpbc TV 신규 프로그램 안내 및 창작생활성가제 공모

## [신규 프로그램] 배광하 신부와 함께하는 신앙산책



코로나19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의 영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로 신앙·영성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춘천교구 배광하 신부의 강의로 미사, 신망애, 상처와 치유, 고통과 부활, 성경 등의 주제를 통해 우리의 삶을 깊은 신앙으로 이끄는 산책에 함께해보세요.

방송시간 금 8시, 일 8시, 월 20시, 목 15시 | 첫 방송 6월 18일(금) 8시

## [공모] 제20회 cpbc창작생활성가제 참가 공모



지 접수 / 자세한 내용은 cpbc 홈페이지 참조.

cpbc 창작생활성가제가 올해로 2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고통과 참회를 넘어 새로운 만남의 장이 되길 희망하며 모든 이에게 기쁜 찬미의 무대가 되고자 합니다. 일상의 소중함과 만남, 기도 안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다양한 형태의 창작 생활성가를 기다립니다(7월 1일~25일까지 접수).

서울주보 5월 9일자 [cpbc TV 신규프로그램]에 소개된 서울 중림동 가톨릭대교회 최양업홀을 서울 중림동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로 바로 잡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연장에 따르는 본당의 세부 지침 (2021년 6월 11일자 발령)

2021년 6월 14일(월) 오전 0시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연장에 맞추어 수정된 본당의 세부지침입니다.

• 개인 기도와 묵상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을 위해 '평일(월~금요일)에 한하여' 대성전 개방을 계속합니다.

■ 개방시간 : 오전 11시 ~ 오후 4시

• 김대건 성인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2020년 11월 8일부터 개방된 지하성지는 매일 아래와 같이 개방을 계속합니다.

■ 개방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 상설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 고해성사 : 월요일 ☞ 없음.

화~금 ☞ 오전 11시 ~ 오후 6시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7시

주 일 ☞ 오전 10시 ~ 오후 7시

• 단체 모임이나 회합 등의 활동은 추후 공지 시까지 중단합니다.

• 예비신자 교리반은 추후 공지 시까지 대면 수업은 중단하며, 비대면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진행됩니다.

•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서 미사 참례인원은 교적과 상관 없이 미사당 250명으로 제한됩니다.

타 교적 신자분들은 가급적 주소지(거주지) 인근 본당에서 미사에 참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7월 4일(주일) 24시까지 적용

### ◆◆ 기부 전시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6월 7일 ~ 6월 13일 : 500,000원)

누계 : 2,196,538,958원

윤 보 성 : 500,000원

기부 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 2021 명동 보름장 개장

• 기간 : 4월~11월 (첫째 · 셋째 주일) 10:00~16:00  
방역지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바구니와 개인 반찬그릇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 교황님과 함께 하는 '백신 나눔 운동'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21년 춘계 정기 총회를 통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과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시성을 준비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백신 나눔 운동'에 모든 교구가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혜택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하는 이 '백신 나눔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백신 나눔 운동' 참여 방법 ※

1.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본당 사무실을 통하여 성금을 내시면 되고, 비신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2. 형편에 따라 성금 액수는 자유로이 하실 수 있으며, 참고로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금액은 약 6만 원입니다.
3. '백신 나눔 운동' 참여 기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 종료되는 올해 11월 27일(대림 제 1 주일 전날)까지입니다.

### ◎ 명동대성당 미사 (2020년 11월 30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월요일	07:00, 10:00, 18:00
화~금	07:00, 10:00, 18:00, 19:00
토요일	07:00,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
일요일	7:00, 9:00(영어), 10:00, 11:00 12:00(교중) 16:00, 17:00, 18:00, 19:00(청년)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토요일 오후 6시·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

※성당 개방 시간 ☞ 월~토 : 09:00 ~ 20:00

☞ 일요일 : 06:00 ~ 20:00

### ◎ 본당 사무실 업무시간

요 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점심시간 [12:00~13:00] 사무실 폐문
토요일		
일요일	07:00~20:00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 르 티 노) 신부  
부 주 임 김한국(베 드 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좌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

###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

오는 6월 25일(금)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한국 교회의 고유 전례력에 따라 각 본당에서는 당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또한 그 전 주일인 오늘 교중미사로 본 미사를 봉헌하오니 북한 형제를 위한 나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6월 20일(주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 봉헌

※아울러 6월 25일(금) 오전 10시에는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가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 2. 6월 20일(주일) 2차 헌금

북한 형제들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 3.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참석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는 1995년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명동대성당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지향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기도 바랍니다.

#### 4. 9월 기도 [6월 17일(목)~6월 25일(금)]

미사 전이나 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109면 / 매일미사 191면)를 함께 봉헌해 주십시오.

##### \* 9월 기도 지향

17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18일: 북한과 미국,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19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하여

20일: 경제제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21일: 남과 북의 복음화를 위하여

22일: 이산가족과 탈북민들을 위하여

23일: 한반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24일: 평화의 일꾼들을 위하여

25일: 한반도에서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 ◎ 7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예비신자 환영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7월 4일(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접 내방 접수로 교리반 신청을 받으며, 비대면 온라인 화상 수업(Zoom 프로그램)으로 진행 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시 간	강 사
목요반	오후 7:30	손태진 (바오로) 신부
토요반	오후 4:00	이 켈뚜르다 수녀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각 반 50명씩 선착순 접수

※교리반 접수 장소 : 교육관 303호

※접수 시 준비사항 : 등록비 1만원, 반영향판 사진 1매

☞ 등록비와 사진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꼭 지참하시고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필사노트·독후감 찾아 가세요 !

김대건 신부님 서간집 필사·독후감 제출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6월 안으로' 제출하신 필사 노트·독후감과 소정의 상품을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 범우관 401호 10:00~18:00

·평일 ☞ 본당 사무실 09:00~19:00 (점심시간 폐문)

### ◎ 하절기 미사 참례 시 유의사항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하절기에는 미사 참례를 위해 더운 공기와 햇볕 아래 장시간 줄을 서 대기하시다가 몸이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온열질환(일사병·열사병)으로 응급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계속되고 있고, 성전 내 음료수 반입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영유아 및 노약자, 당뇨·심장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온이 높은 오전 11시~오후 4시 외출을 삼가 주시고, 가급적 아침과 저녁 시간대 미사에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 6월 세례자 감사예물

지난 주일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1,980,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6/7-6/13).....19,882,000  
• 연중 제 11 주일 헌금.....17,974,000  
• 감사헌금 (5/31-6/6).....2,022,000

김 부르노 / 김 요셉 / 김 펠릭스 / 도 로사  
오 엘리사벳 / 이 베드로 / 임 사무엘

### ◎ 교황 주일 2차 헌금

6월 27일(주일)은 연중 제 13 주일이자 '교황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세상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를 위해 특별히 기도 하는 날로서 매 미사마다 교황 성하의 사목을 지원 하기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